

한부모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 연구*

김 주 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jrkim28@gmail.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돌봄 공백은 아동이 성인 없이 지내는 시간을 의미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통제력을 상실한 부적절하고 과도한 문제적 사용 행태를 의미한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초등학생이 있는 한부모가정 1,110가구를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서 문제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 시간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위험성 또한 달라졌으며, 1시간 공백보다 2시간 공백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위험이 더 높았다. 이밖에도 부자가정 자녀가 모자가정에서보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위험이 더 높았고, 한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 또한 위험이 더 높았다. 반면, 부모가 대졸 이상이거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위험도는 감소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주제어 : 한부모가정, 돌봄 공백,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 교육

* 이 논문은 202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1S1A5C2A03097574)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5.8%에 불과할 정도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기기 보유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5시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조선일보 2022/01/13)¹⁾. 기존의 휴대전화와 다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장치를 통해 대화, 문자, 인터넷, 음악, 비디오, 소셜 네트워킹 등 다양한 기술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Vaterlaus et al. 2021).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의 영역도 생산성 향상, 정보검색, 상호작용, 오락 및 휴식,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Van Deursen et al. 2015). 이렇듯 스마트폰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많은 기능을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Elhai et al. 2017), 활용 영역의 폭도 넓기 때문에 보급과 이용이 급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성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²⁾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게 되었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검색, 오락, 소통 등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김현숙 2019).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6%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위험비율이 높는데, 만11-19세 청소년 집단의 경우 과의존 위험비율이 40.1%에 달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이나 따돌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접근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Vaterlaus 2021). 지능정보사회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은 유용하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³⁾

1) 출처: <https://bit.ly/3sCUFFI> (검색일 2023. 6. 22.).

2) 중·고등학생은 100%, 초등학생도 84.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이순아 2021).

3) 스마트폰 사용과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가 목, 어깨 통증 또는 손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우울감,

특히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체력 저하 및 학업성적 저하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Elhai et al. 2017, 252),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층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가정에서 과의존과 문제적 사용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조선비즈 2013/06/13⁴⁾; Chang et al. 2019). 이는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지도를 해줄 어른이 부재한 상황, 즉 돌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최미숙 외 2022). 이 때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자녀가 방과 후에 홀로 지내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양경해 외 2016; 김현숙 2019). 성인의 보호가 없이 방과 후에 혼자 지내는 '나홀로 아동'은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감,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업성취와 사회성 발달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이정숙 2008; 이봉주 외 2011; 서혜전 2012; 천희영 2014). 아울러, 나홀로 아동은 방과 후에 미디어 노출시간이 길고, 학교 적응 수준도 낮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양경해 외 201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는 홀로 남겨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부모가정에서 성인의 부재 상태와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행태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부모 자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양부모 자녀와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상대적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에(양경해 외 2016; 이현이 외 2018; 길소연 외 2020; Chang et al. 2019),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면밀하게 조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연은모 외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에 집중하여 자녀 돌봄 여건에서 비롯되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논하고자 한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중독이나 과의존 문제를 다룬 연구는 중학생 이상 청소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향이 있어(전춘애 외 2008; 이래혁 2018; 이현이 외 2018; 길소연 외 2020; 연은모 2021; 이래혁 외 2022; Cha et al. 2018; Vaterlaus et al. 2021), 초등학생을 포함한 어린 자녀의 돌봄 여건과의 연관성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돌봄 문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성인 없이

불안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장애와도 관련있다(Elhai et al. 2017).

4)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3/2013061301964.html (검색일 2023.04.30.).

지내는 시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돌봄 공백 개념에 초점을 두고, 돌봄 공백 여부 및 시간에 따라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에서 문제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정책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가족 여건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행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사용상의 문제는 ‘중독’이나 ‘과의존’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전에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병리모형의 관점에서 중독에 초점을 두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오송석 외 2021). 이밖에도 스마트폰 과의존(over dependency)은 문제가 있는 사용(problematic smartphone use), 과도한 사용(excessive use), 강박적 사용(compulsive use), 노모포비아⁵⁾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래혁 외 2022; Elhai et al, 2017; Bhattacharya et al. 2019). 이들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집착, 통제력 상실로 인한 과도한 사용,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 대인관계의 부작용, 금단 증상 등이 언급되고 있다(이래혁 외 2022, 4).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휴대성과 접근성 그리고 플랫폼 특성에서 인터넷 사용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Elhai et al. 2017),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는 인터넷 사용 문제(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Kuss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상에서 논의한 과의존, 문제가 있는 사용, 노모포비아 등을 포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7).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의존 인구를 측정한 결과, 2022년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26%로

5) 노모포비아(Nomophobia: NO MOBILE PHONE PHOBIA)는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를 나타낸다(Bhattacharya et al. 2019)

확인되었고,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오송석 외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⁶⁾ 2022년에는 11-19세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비율이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이에 대하여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놀이, 방역을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의존도를 높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래혁 외 2022). 실제로 김선숙 외(2021)의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아동·청소년의 TV·PC·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10-12세 아동의 50.4%, 만13-15세 청소년의 46.1%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빈곤, 한부모, 조손가구 청소년에게서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였다(김선숙 외 2021; 이래혁 외 2022). 학습 목적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비대면 교육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으나,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부모의 지도 및 통제가 필요한 시간이다.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제한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의 청소년은 컴퓨터를 학습에 활용하기 보다는 인터넷 및 게임에 더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다시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위험을 높인다(김현숙 2019). 그렇기에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기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성인의 감독이 중요하다(Chang et al. 2019).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자로서의 역할도 버거운 빈곤·한부모·조손가구의 성인들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과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취약계층 가정에서 자녀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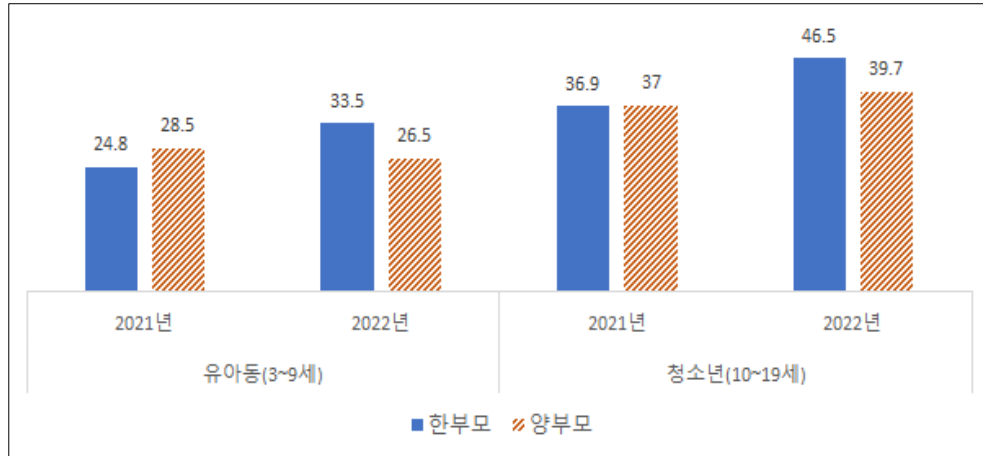
한부모가정의 유아,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가 양부모가정에 비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오송석 외 2021),⁷⁾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가정 자녀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21년에는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양부모가정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2022년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과의존 비율이 전년도 대비 거의 10%p 증가하며 유아동과

6) Cha et al (2018)의 연구에서 한국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3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나라 연구를 보면 영국은 10%, 스위스는 17% 수준으로 훨씬 낮았다(Chang et al., 2019).

7)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대체로 양부모가정 자녀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한부모가정에서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 모두 양부모가정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급격한 증가세는 이들 집단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 더욱 취약성을 드러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1] 한부모 및 양부모 가구의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42) [그림 3-1-10]을 재구성함

아동·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일반 가정과의 비교를 통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양경해 외 2016; 이현이 외 2018; 길소연 외 2020; Chang et al. 2019). 그러나 연은모 외(202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 방법은 한부모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다수의 연구들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문제,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해 사회적 배제에 놓일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현은민 2007; 문성희 외 2011; 김현숙 2019; 문화진 2023). 이에 더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 또한 높은 가운데(길소연 외 2020; Chang et al., 2019),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공격성, 자살 생각, 학업성적, 사회적 관계 등에서 부정적 문제를 동반한다(연은모 외 2021, 123),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높고, 이는 자녀의 발달과 학업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정이 경험하는 누적적이고 다차원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렇듯 열악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돌봄 공백과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

전춘애 외(2008)의 연구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돌봄)이 많고 부모의 강압적 통제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외 다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의 돌봄기능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 간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으나(김현숙 2019; 길소연 외 2020; 장혜림 2021; 연은모 외 2021; 이래혁 외 2022),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 상황이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이현이 외 2018) 또는 부모가 자각한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문화진 2023) 등 돌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돌봄 부재 상태를 나타내는 돌봄의 물리적 상황에 집중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 돌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 문제 간 관계를 조명함에 있어 돌봄의 물리적 속성에 초점을 둔 돌봄 공백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돌봄 공백은 기존 연구의 정의를 토대로 ‘아동이 방과 후에 일정 시간을 성인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본다(이봉주 외 2011; 김주리 외 2021).⁸⁾ 서구 사회에서 돌봄 공백은 ‘자기보호 아동’ 개념으로부터 구체화 되었고,⁹⁾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나홀로 아동’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김주리 외 2021). 방과 후에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책임감과 독립심, 자기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Rodman et al 1987). 그러나 성인의 도움 없이 지내는 아동들은 충분한 훈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돌봄 공백이 없는 아동에 비해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감, 비행경험 가능성이 높으며,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사회성 발달 정도가 낮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이정숙 외 2008; 이봉주 외 2011; 서혜전 2012; 천희영 2014). 그럼에도 이들 연구에서 자녀의 돌봄 공백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와의 직접적인 관계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성인보호자의 보호 및 지도·중재 역할은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자녀의 인터넷·모바일 기기 사용에서 부모가 콘텐츠와 관련하여

8) 돌봄 공백은 ‘방치’ 개념과도 유사한데, 이는 성인보호자가 없이 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을 나타내며, 돌봄의 내용 측면에서 적절한 관심, 양육,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방임’과는 구분된다(이봉주 외 2011; 김주리 외 2021)

9) 자기보호 아동(self-care child)은 ‘부모나 성인의 보호 없이 가정에서나 학교운동장에서 혹은 거리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김주리 외 2021, 180).

대화하고, 안전과 책임 있는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며,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Livingstone et al. 2014, 52). 돌봄 공백 상황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부모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의 지도 또는 중재자가 없는 아동은 과의존이나 문제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만을 사례로한 실증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애착과 함께 부모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중재적 역할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Chang et al. 2019).¹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에게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평일 방과 후에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 즉 돌봄 공백의 위험이 양부모가정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지 외 2015; 김주리 외 2021; Casper et al. 2004). 이는 한부모가 소득 활동을 위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과 관련된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취업률은 87.4%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중 절반 정도(48.2%)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5; 김현숙 2019).¹¹⁾ 이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한부모들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자주 보고한다(현은민 2007; 김은지 외 2015; 배호중 외 2021; 최미숙 외 2022).

요컨대, 한부모는 가사, 근로, 자녀 돌봄 등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장시간 유급노동을 하게 되고, 그만큼 가사 및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한부모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지면 자녀의 생활시간과 발달,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현숙 2019). 예컨대, 한부모가정의 어린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돌봄 공백은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양경혜 외 2016). 한부모가정의 돌봄 공백이 학습 목적보다는 인터넷 및 게임의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을 더 늘린다는 김현숙(2019)의 주장도 이를 지지한다. 김현숙(2019)의 연구는 돌봄 공백 변수에 초점을 두지 않았음에도, 한부모가정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의 정도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증가와 연관 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10) 반대로,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Kwak et al. 2018)

11) 2021년 조사에서 한부모의 취업률은 77.7%, 1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한부모는 27.9% 수준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진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돌봄을 위해 일하지 않는 한부모가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배호중 외 2021).

바탕으로 돌봄 공백 여부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서 문제적 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복합적이지만,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는 돌봄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와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한부모 자녀는 방과 후에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정서발달 및 교육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를 자녀의 정서적·교육적·발달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부모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경향이 있어(이현이 외 2018; 길소연 외 2022; 연은모 외 2021; 이래혁 외 2022), 방과 후 돌봄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돌봄 문제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기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다른 요인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래혁, 2018).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낮았다(이래혁 외 2022). 가구의 경제수준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가구의 경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전춘애 외, 2008), 가족의 경제력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길소연 외 2020). 다른 한편으로, 한부모가정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가 더 높았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이래혁 2022). 이밖에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한부모로서의 어려움과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문화진 2023). 유사하게, 연은모 외(2021)는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과 차별 경험, 우울감 등의 정서적 가치를 주요한 변수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고려되었다.

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의 돌봄 공백과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관련 문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전국의 한부모가정 3,301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 경제 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다.¹²⁾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돌봄 공백에 있으며, 이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를 추출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관련 문항에 유효한 응답을 한 1,110가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행태와 관련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9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아래에 제시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식으로 응답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서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 ① 인터넷·스마트폰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우곤 한다.
- ② 평소와는 달리 인터넷·스마트폰을 할 때만 할 일을 다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 ③ 인터넷·스마트폰에 빠진 이후 폭력적(언어적, 신체적)으로 변했다.
- ④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곳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을 하곤 한다.
- ⑤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인터넷·스마트폰을 하곤 한다.
- ⑥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 ⑦ 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는 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내곤 한다.

12)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 ⑧ 하루 이상을 밤을 세우면서 인터넷·스마트폰을 하곤 한다.
- ⑨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이들 문항은 기존연구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의 ‘과의존’, ‘중독’, ‘문제적 사용’, ‘노모포비아’ 등의 개념 및 증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관해 응답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각한 문제적 행동에 기초한 응답이므로 ‘과의존’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한부모의 인식에 기초하여 자녀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연은모 외(2021)의 연구 방법을 차용하여¹³⁾ 9개 문항 평균 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 ‘위험 가구’로, 2.5점 이상인 경우 ‘일반 가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9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42이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돌봄 공백에 주목한다. 돌봄 공백은 방과 후에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는지 여부와 돌봄 공백에 놓이는 시간을 각각 측정하였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자녀가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는지, 있다면 몇 시간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평일 일과 후에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경우를 돌봄 공백으로 측정하였고, 공백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되는 변수들로서 한부모가정 유형, 한부모의 연령과 학력, 자녀 수, 가구소득, 부모의 종사상 지위, 거주지역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3) 이들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와 관련한 9개 문항 평균의 5점 척도 중앙값(2.5점)을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을 구분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 여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질문한 9개 문항의 평균값이 2.5점 미만인 경우는 0, 2.5점 이상인 경우는 1로 코딩
독립 변수	돌봄공백 여부	평일 일과후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없음=0 평일 일과후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있음=1
	돌봄공백 시간	돌봄공백이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공백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투입
통제 변수	한부모가정 유형	조손 및 기타 가정을 기준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추가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40대, 50대 이상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투입
	한부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0 대학교 졸업 이상=1
	자녀 수	12세 이하 자녀 수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투입 ¹⁴⁾
	종사상지위	부모의 종사상 지위에 대하여 비취업인 경우를 기준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각각 의미하는 더미변수 추가
	수도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 비수도권(그 외 지역)=0

자료: 저자 작성

4) 분석기법

한부모가정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경험하는 돌봄 공백과 시간의 정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문제의 정도, 한부모 가구의 특성 등 분석 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14) 가구 규모를 고려한 균등화가구소득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으나,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가 소득 구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분석모형에는 범주형 변수로 투입되었다.

과 평균 차이 검정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경험하는 돌봄 공백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행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부모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한부모 유형 등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가 스마트폰 사용에서 상대적으로 문제적 행태를 더 보이는 집단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Stata 15를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대상의 특성에 관한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분석대상 1,110가구 중 49.7%가 돌봄 공백이 있다고 응답하여, 한부모가정에서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공백 위험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평일 방과 후에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응답한 가정이 전체 15.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시간 공백은 9.7%로 가장 적었다. 자녀가 3시간 공백이 있다고 응답한 가정은 11.4%였고, 4시간 돌봄 공백에 처한 가정도 12.5%로 상당히 많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태조사가 2021년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돌봄 공백에 처한 아동의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정 유형별 분포에서는, 모자가정이 60.8%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확인되며 부자가정은 24.7%로 나타났다. 조부모나 다른 친인척과 동거하는 한부모가정은 기타 가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은 전체 분석 대상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의 특성을 보면 30-40대의 비중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정이 절반 이상(54.1%)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젊은 연령대에서 학력수준이 높아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중 대다수(75.3%) 가정은 자녀가 1명이고, 3명 이상 가구는 매우 드물다. 가구 소득은 주로 100-300만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 가구는 26%, 100만원 미만 가구는 소수(2.8%)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부모가 다수이고(43.2%),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업의 순서로 비중이 높았으며, 비취업 부모도 19%를 차지하였다. 분석대상의 대략 40% 정도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 대상의 특성

단위: 명(%)

변수		빈도(비중)	변수		빈도(비중)	
돌봄 공백	없음	558(50.3)	자녀 수	1명	836(75.3)	
	있음	전체		552(49.7)	2명	246(22.2)
		1시간		108(9.7)	3명 이상	28(2.5)
		2시간	178(15.7)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1(2.8)
		3시간	129(11.4)		100~200만원 미만	349(31.4)
	4시간 이상	139(12.5)	200~300만원		441(39.7)	
300만원 이상	289(26)					
한부모가정 유형	모자가정	675(60.8)	부모의종 사상지위	비취업	211(19)	
	부자가정	274(24.7)		상용직	480(43.2)	
	기타	161(14.5)		임시/일용직	304(27.4)	
부모 연령	30대 이하	404(36.4)	거주지	자영업	115(10.4)	
	40대	637(57.4)		비수도권	670(60.4)	
	50대 이상	69(6.2)		수도권	440(39.6)	
부모 학력	고졸이하	509(45.9)	전체 분석 대상		1,110(100)	
	대졸이상	601(54.1)				

자료: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자녀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전체 분석대상 중 343가구(30.9%)가 상대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정도가 높은 ‘위험 가구’로 분류되었다. 이들 집단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문제 행동 문항 평균점수는 3.22점으로 일반가구의 평균 1.67점 보다 거의 두 배 높았고, 집단 간의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1$).

〈표 3〉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정

	빈도 (비중)	평균	차이	t
일반 가구	767 (69.1%)	1.67	1.55	-50.612***
위험 가구	343 (30.9%)	3.22		
N	1,110(100%)			

자료: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주: *** $p < 0.01$, ** $p < 0.05$, * $p < 0.1$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부모가정에서 자녀의 돌봄 공백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돌봄 공백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개의 분석모형을 각각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모형1에서 독립변수는 돌봄 공백 여부이며, 모형 2에서는 돌봄 공백 시간이 독립변수로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해석이 용이하도록 승산비(odds ratio)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1의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없는 가정에 비해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위험군에 속할 승산이 31.8%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다른 성인이 포함된 기타 가정에서보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서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부모가 비취업인 경우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대로 부모가 대졸 이상이거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 위험이 낮아졌다. 한부모의 연령과 가구의 월소득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의 결과는 돌봄 공백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 공백이 없는 가정에 비해 1시간 또는 2시간 있는 가정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3시간 이상 돌봄 공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돌봄 공백이 1~2시간인 경우에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서 문제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는, 방과 후에 어른의 지도 없이 보내는 짧은 시간에도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잘못된 사용 습관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돌봄 공백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면 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위험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돌봄 공백을 1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3시간 이상 돌봄 공백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돌봄 공백이 없는 가정 자녀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3시간, 4시간 이상 돌봄 공백 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자기돌봄의 순기능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장시간 돌봄 공백이 자녀의 책임성을 높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은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 다른 통제 변수의 영향 관계는 모형 1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2		
		b	Exp(b)	b	Exp(b)	
돌봄 공백	돌봄공백 여부		0.276	1.318*	-	-
	공백 없음 기준	1시간	-	-	0.393*	1.482
		2시간	-	-	0.424**	1.527
		3시간	-	-	0.166	1.181
		4시간 이상	-	-	0.075	1.078
가구유형	기타 한부모가정 기준	모자가정	0.443*	1.557	0.443*	1.557
		부자가정	0.694***	2.001	0.697***	2.009
연령	30대 이하 기준	40대	0.140	1.150	0.140	1.151
		50대 이상	-0.064	0.938	-0.069	0.933
학력	대졸이상 여부		-0.252*	0.777	-0.283	0.754
자녀수	12세 이하 자녀 수		-0.335**	0.715	-0.345**	0.708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기준	100~200	-0.207	0.813	-0.217	0.805
		200~300	-0.398	0.672	-0.428	0.652
		300만원 이상	-0.682	0.505	-0.712	0.491
종사상 지위	비취업 기준	상용직	0.297	1.345	0.328	1.388
		임시일용직	0.014	1.014	0.034	1.035
		자영업	0.868***	2.382	0.905***	2.472
지역	수도권 여부		0.580***	1.785	0.569***	1.766
	상수		-0.999	0.368	-0.966	0.381
Log likelihood			-656.807		-655.497	
Pseudo R ²			0.079		0.082	
표본 수			1,110		1,110	

자료: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주: 종속변수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에 문제가 있는 가정인지 여부를 나타냄.

***p<0.01, **p<0.05,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에 성인 없이 지내는 시간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발생 위험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성인의 보호가 부재한 시간, 즉 아동의 돌봄 공백이 있는 한부모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돌봄 공백의 정도가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모형의 결과는 자녀가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사용 문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자녀의 돌봄 공백이 1시간일 때보다 2시간일 때 스마트폰 사용 문제 위험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 또는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돌봄과 지도를 강조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춘애 외 2008; 김현숙 2019; 길소연 외 2020; 연은모 외 2021).

돌봄 공백 이외에도, 부자가정에서, 한부모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수도권에서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에서 문제적 행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부자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한부모가 여성 한부모에 비해 아동의 양육과 가사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가정 내 역할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양경애 외 2016; 최미숙 외 2022). 즉, 가정에서 돌봄 역할 수행이 어려운 남성 한부모는 자녀에 대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적절한 지도 및 감독 수행도 어려워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한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비취업 부모에 비해 자녀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문제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가¹⁵⁾ 자녀에 대한 적절한 돌봄과 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결과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보다 인터넷·스마트폰 문제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 지역 아동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이래혁(2018)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수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즉, 고졸 이하 부모에 비해 대졸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인터넷·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 위험이 감소했다. 이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이 감소한 연구 결과(이래혁 외 2022)와,

15)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42.5%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TN 21/08/19).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91015077870 (검색일 2023.06.22.).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더 적게 나타난 결과(문화진 2023)와 일치한다. 특히 돌봄 공백과 관련하여 다른 자녀의 유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정에서 다른 자녀가 함께 있다면, 성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반대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부모의 통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문화진 2023).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방과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돌봄 공백 해소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로서 방과후 돌봄,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한부모가정은 우선적으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김주리 외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중 절반 정도가 여전히 돌봄 공백에 놓여 있으며, 돌봄 공백 상황이 인터넷·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부모가정의 돌봄 공백이 자녀의 발달 및 교육영역에서 또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공적 돌봄 체계 안으로 흡수되어 돌봄 공백에 처하지 않도록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확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일차적으로 아동이 일과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가능하지만, 방과후 돌봄 제공 기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박애정(2021)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훈육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적절한 지도 및 훈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한부모가정에서 경험하는 돌봄의 어려움을 객관적 상태로 측정하기 위해 돌봄 공백 개념에 집중하면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인식, 심리적 부담, 우울감 등의 주관적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면서 한부모와 자녀 특성 변수의 사용에

다소 제약이 따랐다. 즉, 분석에서 자녀의 성별과 학년, 부모의 근로시간 등을 직접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의 방과 후 돌봄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만 분석에 포함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청소년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부모가정의 다차원적인 돌봄 상황을 고려한 실증분석 또는 한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수행 등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 대상과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길소연 · 김민선 · 박관우 · 이혜진 · 박우주 · 오미경. 2020. 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0(2), 103-109.
- 김선숙 · 김세원 · 박호준 · 김성희 · 문영은.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 김은지 · 장혜경 · 황정임 · 최인희 · 김소영 · 정수연. 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 김주리 · 최혜진 · 강지원. 2021.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1(2), 178-197.
- 김현숙. 2019. 한부모의 유·무급 노동시간과 시간부족 인식이 자녀의 학교 밖 학습시간 및 컴퓨터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63), 65-96.
- 문성희 · 이대균. 2011. 한부모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열린 유아교육연구 16(3), 313-335.
- 문화진. 2023. 한부모가족의 특성, 한부모의 어려움과 우울감이 학령기 자녀의 인터넷및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4(1).
- 박애정.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7(5), 163-172.
- 배호중 · 정가원 · 박미진 · 선보영 · 성경. 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 서혜진. 2012. 방과후 방치와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0(3), 25-41.
- 양경해 · 강현아. 2016. 한부모가정여부가 아동의 자기보호와 미디어노출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221-251.
-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 <https://bit.ly/3PfMRT0> (검색

일: 2023.04.10.).

- 연은모 · 최효식. 2021.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이혼 가정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예측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123-135.
- 오송석 · 정현용.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분석.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6(3), 461-470.
- 이래혁. 2018.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성별 및 연령별 비교.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 이래혁 · 장혜림. 2022. 코로나 19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제 악화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불안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4(1), 1-26.
- 이봉주 · 조미라. 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7-33.
- 이순아. 2021. 코로나19 전후, 초·중·고 학생의 미디어 이용. 전북교육정책 오늘 2021(2).
- 이정숙 · 김은경. 2008. 가족구조에 따른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학교적응 및 자의식 정서. 대한가정학회지 46(2), 85-96.
- 이현이 · 김영식. 2018. 부모 양육 태도가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62-74.
- 전춘애 · 박철욱 · 이은경. 2008. 아동, 청소년 상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한국미디어패널조사. <https://bit.ly/44qN0aY> (검색일: 2023.06.22.).
- 천희영. 2014.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방과 후 보호, 가정 환경과 자기 조절 학습 능력 및 정서·행동 문제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265-289.
- 최미숙 · 임효연. 2022.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여가활동이 학령기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3), 606-616.
- 현은민. 2007. 한부모가족의 적응: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25(5), 107-126.

- Bhattacharya, S., M. A. Bashar, A. Srivastava, and A. Singh. 2019. Nomophobia: No mobile phone phobia. *Journal of Family Medicine and Primary Care* 8(4), 1297.
- Casper, L. M., and K. E. Smith. 2004. Self-care: Why do parents leave their children unsupervised?. *Demography* 41(2), 285-301.
- Cha, S. S. and B. K. Seo. 2018. Smartphone use and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Prevalence, social networking service, and game use. *Health psychology open* 5(1), <https://doi.org/10.1177/2055102918755046>.
- Chang, F. C., C. H. Chiu, P. H. Chen, J. T. Chiang, N. F. Miao, H. Y. Chuang, and S. Liu. 2019. Children's use of mobile devices,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al mediation in Taiwa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3, 25-32.
- Elhai, J. D., R. D. Dvorak, J. C. Levine, and B. J. Hall. 2017.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conceptual overview and systematic review of relations with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path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7, 251-259.
- Kwak, J. Y., J. Y. Kim, and Y. W. Yoon. 2018. Effect of parental neglect on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in South Korea. *Child Abuse & Neglect* 77, 75-84.
- Livingstone, S., L. Haddon, J. Vincent, G. Mascheroni, and K. Ólafsson. 2014. Net children go mobile. The UK.
- Rodman, H. and D. J. Pratto. 1987. Child's age and mother's employment in relation to greater use of self-care arrangements f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578.
- Van Deursen, A. J., C. L. Bolle, S. M. Hegner, and P. A. Kommers. 2015. Modeling habitual and addictive smartphone behavior: The role of smartphone usage types,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tress, self-regulation, age, and gend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411-420.

- Vaterlaus, J. M., A. Aylward, D. Tarabochia, and J. D. Martin, 2021. A smartphone made my life easier: An exploratory study on age of adolescent smartphone acquisition and well-be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4, 106563.
- 조선일보
- 조선비즈
- YTN

● 투고일: 2023.07.10. ● 심사일: 2023.08.14. ● 게재확정일: 2023.08.21.

| Abstract |

Self-Care for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and Problematic Use of Internet and Smartphone

Kim Juri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 self-care for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increases the likelihoods of problematic internet/smartphone u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selecting 1,100 single-parent household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raw data of the 2021 Single-Parent Family Survey.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ingle-parent familie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facing self-care are associated with problems in internet/smartphone uses. The time of the self-care for children also affected the problematic use of internet/smartphone; that is, compared to children without self-care time, the risk of problematic us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children who were in a 1-hour self-care, and even higher in a 2-hour self-care. In addition, the risk of internet/smartphone use problems was higher for children from single-father families than single-mother families. Moreover, the risk of problematic us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arent's job(i.e. being self-employed) and residential region(i.e. the metropolitan area). On the other hand, the risk decreased when the parent has a college degree or higher, or the family has the larger number of childre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emphasised that public after-school care programmes as well as parental educ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event problematic internet/smartphone use for children.

<Key words> Single-parent Family, Self-care Time, Problematic Internet/ Smartphone Use, After-School Care Programmes, Parent Education